

한 건축사의 전쟁

An Architect's War

민규암 / 토마 건축사사무소

by Min Kyu-Am

지난 6월 한국은 역대 월드컵 사상 초유의 성적을 내면서 세계 4강의 신화를 이룩했다.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터진 역전골은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을 통쾌하게 날려주는 것이었고, 그 후로도 우리 모두를 들뜨게 했던 계속되는 승전보는 6월 한 달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마취제 같은 것이었다.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월드컵은 돌이켜 본다면 그것은 가슴 벅찬 것이었고, 우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었지만 대한민국의 한 건축사로서는 지난 월드컵을 떠올릴 때마다 조금은 씁쓸한 기분을 갖고서 살아갈 것 같다.

1999년 11월경 서울시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 의하면 건축 관련 상의 수상경력이 있는 건축사인 필자에게 서울시가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에 내놓아도 남부럽지 않을 확장실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니 그 대열에 참가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담긴 것이었다. 정말 감격스러웠다. 서울시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업의 일부에 참여해서 건축사로서 한몫을 당당히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니. 사실 그 보수는 그때 느끼고 있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것이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훌륭한 안으로 좋은 건물만 지어줄 수 있다면 필자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역시 한달 남짓이라는 짧은 설계 기간이 주어졌다. 다른 일반 설계 안이었다면 그 비용과 기간에서 한번 그 계약 자체를 다시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경우였지만, 서울시의 숭고한 뜻을 생각해서 모든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고,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한달 간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안을 만들었다. 작업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한 달만에 일을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그만큼 큰 보람도 따랐다. 마지막 날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서울 시청에 도면을 납품하면서 느꼈던 새벽 남산의 공기는 얼마나 시원하던지.

납품 후에는 그저 모든 것이 잘되리라 믿었다. 아니 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서울시가 깊은 관심

을 갖고 직접 관여하여 모든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니 어렵히 잘될 것이라 믿었다. 봄에 개시할 것이라는 공사 일정은 무척 궁금했고, 또 공사감리도 누가 할 지 궁금했지만 공연히 바쁘신 분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 물어보고 싶어도 참기로 했다. 사실 감리는 꼭 직접하고 싶었지만 기다려도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필자의 예상과는 크게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서울시가 서대문구에 모든 것을 위임해서 서대문구가 시공을 시작해서도 한참이 지난 후였다.

현장에는 이미 기초와 지중보 등이 설치된 상태였는데 현장에 가보자마자 설계안의 일부가 상당히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설계안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일부를 잘라서 없애고, 또 어느 부분끼리는 붙인다든지 해서 초기의 설계안을 임의로 변형시킨 것이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작태였다. 곧바로 서대문구의 담당자를 만나보았다. 그에 따르면 민원이 발생하여서 조금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필자도 이미 설계 초기부터 새로운 화장실이 들어온다는데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것은 화장실의 설계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화장실 건립자체에 대한 것이었기에 담당자에게 도대체 이런 엉뚱한 부분적인 변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그 진실을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궁금증을 풀 수는 없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저 이 사태를 모른 척 묵인해 주느냐 아니면 문제를 삼느냐였다.

이일로 오랜만에 잊고 지내던 변호사 친구를 만나 조언을 구하게 되었다. 설명을 다 듣고 난 후 그의 충고는 그저 잊으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기기 힘들 것이고 그런 부분적인 변경을 조금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갖고서 무슨 큰 강제적 조치를 얻어낼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아주 긴 소모전이 될 것이고, 거기에 투입될 시간과 경비가 있다면 그것을 더 발전적인 곳에 쓰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물론 그의 말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사실들이었다. 스스로도 이런 법적인 투쟁의 결과가 그렇게 기대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의 생각 끝에 이번만은 그런 상식적인 이해계산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스스로는 그때 이미 항전의 의지를 다지면서 자신에게 던지는 출사표를 쓰고 있었다. 그것은 한 나 몸이 이번에 철저히 희생되어지더라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명분만으로도 이 싸움에 나갈 것이며 지더라도

후회 없겠다는 그런 단호한 것이었다.

싸움은 예상대로 2년여의 시간을 소모시키는 긴긴 것이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의 명분상 그들에게 압승했지만 실리적으로는 큰 소득이 없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처음에 법원에 가기 앞서서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된 저작권 침해여부 심리에서 3인의 저작권법 전문 판사 및 변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서대문구청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판결했고,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원안대로 재시공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계속 공사를 진행했고, 건물은 그들의 뜻대로 완성됐다. 곧이어 서울 지방법원에서의 2라운드에 서 판사는 이미 판결된 대로 서대문 구청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차마 용기 있게 건물은 철거시키지 못하고, 대신 보상금조로 설계비 정도의 금액을 보상받을 것을 판결했다. 결국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써 최근에 그 길고 길었던 재판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말았다. 참 슬픈 일이었다.

이번의 이 재판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설계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긴긴 재판기간 내내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든 기획이었다. 지금 건축계를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여기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지리멸렬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가 항상 우리들을 괴롭히는 칼과 창으로 언제든지 돌변할 것이다. 마치 서울시와 서대문 구청이 태연히 한 건축사의 설계안을 이유 없이 짓밟고도 당당해 하듯이. 이번 재판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 하나는 필자가 제기한 사건과 같은 경우가 필자 이전에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저작권심의위원회 위원들조차 음반이나 책이 아닌 건축물을 들고서 저작권 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위원은 저작권법상 건축물이 명백히 법조문에 들어가 있지만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라고 까지 지적해 주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계속 그저 그렇게 체념하면서 우리의 지위와 사회적인 역할정립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은 계속 더 축소될 것이다. 이제는 분명히 누군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비록 당장에는 질 것이 명백히 보이더라도 먼 훗날을 위해서 대의명분을 세우고 출사표를 던질 때가 된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뜻있는 건축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고한다. **ㄸ**